

# FIBA 농구월드컵 결산 '1승 달성' 한국 男농구, 유종의 미

한국 남자농구가 25년만의 월드컵 1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높은 세계의 벽 또한 실감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한국은 8일 중국 광저우체육관에서 열린 2019 중국 FIBA 농구월드컵 17~32위 순위결정전 코트디부아르와 경기에서 80-71로 이겼다.

이번 대회 한국의 첫 승리이자 월드컵 무대에서 거둔 25년 만의 1승이다.

한국은 1994년 캐나다 대회 조별리그 3전 전패 후 순위결정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집트를 89-81로 이긴 이후 한 번도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1998년 그리스 대회에선 조별리그(3전 전패), 순위 결정전(2전 2패)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겼고 16년 만에 출전한 2014년 스페인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5전 전패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도 연패가 이어졌다. B조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69-95 패), 러시아(73-87 패), 나이지리아(66-108 패)에 3연패를 당했고 6일 중국과 순위결정전 1차전에서는 73-77로 졌다. 월드컵 무대 14번째 눈에 빠졌지만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야 기어코 승리를 거뒀다.

길고 길었던 연패 사슬을 끊고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한국 농구사에 있어 뚜렷한 족적이자 성과다.

그러나 세계와의 격차가 컸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점수 차로 패배했다. 선수들이 입을 모아 "무기력한 패배였다"고 할 정도였다.



8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체육관에서 열린 2019 FIBA 농구월드컵 순위결정전(17~32위) 대한민국과 코트디부아르의 경기, 80-71로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선형(SK)은 조별리그가 끝난 후 "강팀들과 경기를 하다보니 우리가 원래 하던 농구가 나오지 않은 것이 제일 컸다"면서 "내가 즐겨하던 플레이에서 블록슛을 당하다보니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됐다"고 아쉬워했다.

선수들은 개인의 기술력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한국으로 특별 귀화한 라간야(현대모비스)는 "앞으로는 더 자신감있게, 팀으로 플레이해야한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낼 수 있다"면서 "(한국 농구가 발전하기 위해선)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4년 스페인 대회에도 나섰던 박찬희(전자랜드)는 "단기간에 한국 농구 전체가 바뀌는

25년만에 이뤄... 세계의 벽 '실감'

선수 자신감 향상·기술 발전 절실

적극적인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계획과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 대회를 하다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 기량이 부족하다는 걸 체감한다. 어린 시절부터 연마하는 것과 우리의 기술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농구인들 그리고 프로농구 종사자들, 또 유소년 지도자들이 앞으로의 청소년 농구에 선진적인 교육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론을 펼쳤다.

개인 기술로 상대의 조직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최근 농구의 거대한 흐름이다.

단적인 예로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상대였던 파룬도 캄파소(레알 마드리드)는 179cm의 단신 가드이지만 드리블로 상대 선수를 가볍게 제칠 정도로 좋은 기술을 갖췄다. 한국도 캄파소의 개인 능력에 당했다.

월드컵이 아니라 세계 주류 무대인 미국프로농구(NBA)에서도 선수들이 일대일 상황에서 기술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농구는 여전히 조직력에 매몰, 기술 발전은 '뒤틀린' 이다.

한 농구계 관계자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도 일대일 플레이를 시도한

다. 세계의 추세다. 일본, 중국, 이란 선수들도 이런 플레이를 자주 시도하더라.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런 플레이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이런 플레이를 하려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프로농구는 물론 학원 농구 시스템에서도 자신 있는 일대일 플레이를 시도하는 선수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실수라도 나오면 감독의 호통을 듣기 십스런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선수들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개인 기술 발전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했다.

적극적인 투자 또한 이뤄져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있어 좋은 귀감이다.

일본은 불과 수년전인 2014년만 해도 FIBA로부터 두 개 리그의 양립으로 국제 활동 제재를 받는 등 세계 무대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지만 그간 태만했던 농구계 인사들 대신 축구계와 야구계 등의 인물들을 영입해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했다.

한국 농구계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다.

1승이 아닌,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한국 농구계에 결여된 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 시스템 안에서 한국 농구가 원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농구계 전체가 장기적이고 공통된 목표를 가져야만 발전이 따라올 수 있다.

/뉴시스

## 생체대축전 경기장 도내 시·군 균형배분

전북 추진단, 종목별 균형배정 기준 설명·의견 청취

도-도체육회-도내 시군 관계자들, 성공 개최 다짐 결의

전북도 생활체육대축전 추진단(단장 김영민)은 9일 대축전 경기장 시·군 균형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경기장 시·군 균형배정 기준 등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기 위해 열렸다.

생활체육대축전은 43개 종목(정식39, 시범4)에 5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우선 전국체전 경기와 중복되는 종목(32개)은 기존 개최시·군에 배정하고 신규종목(11개)에 대해서는 시·군에 균형있게 배정했다.

이번 시·군의 균형배정은 전북도,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협의하고 경기장 여건등을 고려해 1차 배정(안)을 만들었고, 시·군과 조정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본계획을 설명, 도·시·군간 성공대축전에 대한 비

전 등을 공유했고, 추석을 맞아 시·군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와 도체육회는 시·군 관계자와 내년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짐을 결의했다.

김영민 단장은 "내년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상징물 확정과 경기장배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군에 홍보를 당부하는 등 대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하다! 천년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3일~26일까지 4일간 전북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43개 종목 58개 경기장에서 2만1천여 명의 전국 생활체육 고수들이 참여해 그간 같고 닮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충주 무예마스터십 씨름 개인전 우승

호원대 씨름부 황성하 선수, -75kg 이하에서

호원대학교 씨름부(감독 윤형준) 황성하 선수가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씨름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황성하 선수(사회복지학과 1년)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충주시 장애인영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세계무예마스터십 씨름 개인전(-75kg이하)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 선수는 8강전에서 사민다쿠마리무부부(쓰리랑카)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 준결승전에서는 사무엘코폴(가나)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세르게이(카자흐스탄)선수에게 아쉽게 첫판을 내 졌지만, 다리기술을 이용한 안다리 기술을 연달아 성공하며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씨름 첫 세계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씨름경기에는 14개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 체급(8체급)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8개의 금메달을 획득, 씨름 중추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윤형준 감독(사진 왼쪽)과 황성하 선수.

윤형준 감독은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 정말 기쁘다"며 "씨름의 세계화를 위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도 씨름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